



「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...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」(5.19., 매일경제) 보도 관련

1. 기사 주요내용

- 매일경제는 5.19.(월) 보도된 「제식구 감싸기 줄인다 ... 공직비위 신고하면 대통령 포상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정부차원의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,
 - 부처별로 비위행위 적발자를 추천받아 연말쯤 대통령 표창 등 방식으로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설명 내용

- 국무조정실은 동료 공무원의 비위를 적발해 신고한 이에게 대통령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만, 비위 공직자 적발과 엄정한 처벌에 적극적인 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기회 확대 등은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정동혁 (044-200-2742)
	공직복무관리관실	담당자	서기관 형성희 (044-200-2743)